

식물과 아이들이

함께 키운 이야기

By 마음을 읽다, 마음을 잇다



들어가는 말

이 책은 생태 정서 프로그램, ‘마음을 읽다, 마음을 잇다’에서 함께한 시간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줄여 '마이마이'라고 불렀습니다. 단순한 줄임말로 시작한 이름이었지만 책을 쓰는 과정에서 '나의 마음(My)'을 읽고, 점자도서와 오디오북으로 엮어 누군가와 '마음을 잇는다'는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글에는 식물과 함께 키워낸 아이들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기부받은 식물을 돌보며 하나의 생명을 책임지는 경험을 했고, 식물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발견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글로 내보이는 일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마주하며, 생각하고, 꺼내고, 썼습니다.

글의 길이나 표현 방식은 제각각이지만, 저마다의 진심과 성장의 시간을 오롯이 담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스한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라나는 성장을 함께하는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 마이마이 선생님 일동



황라엘

일상에서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주제로 글을 씁니다.

평소에 하던 쓸데없는 생각들을 엮어 글을 쓰는 편입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부자가 되는 게 꿈인 평범한 중학생입니다.

가위바위보

내가 후회하는 것은 항상 가위바위보와 관련이 있었다. 성당에서 평일 미사를 할 때나, 사고를 쳤을 때 등 꼭 중요한 순간 운이 나쁠 때가 대부분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중학교에 들어와 처음으로 동아리를 선택하는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볼링을 치고 싶었지만, 여느 때와 같이 가위바위보에서 지고 말았다. 승부에 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동아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들어온 동아리가 이곳, 배리어프리 책 만들기 동아리였다.

또다시 가위바위보 시간이 돌아왔다. 동아리에서 키울 식물을 선택해야 했고, 꽤 중요한 결정이 필요했다. 마음에 드는 식물은 있었지만 또 가위바위보에서 졌다. 그리고 내게 남은 건 인기가 없는 식물 하나였다. 금전수라는 식물이었고 즐기는 굼지만 휘어져 있는 모습이 어딘가 바보 같아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나와 닮아 보이기도 했다.

사실 나는 볼링은 그다지 하고 싶지도 않았고, 식물도 어떤 걸 고르든지 상관없었다. 딱히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없는 나는 괜히 휘어져 내가 진짜로 하고 싶었던 건 무시하고 애꿎은 가위바위보만 탓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나처럼 바보 같은 식물을 데려온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수업시간의 비밀

지루함을 느낄 때는 언제일까? 수업시간? 학교 끝나고 혼자 걸어갈 때? 아니면 약속이 취소됐을 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사람이 같더라도 기분이나 상태가 다르면 지루함을 느낄 때 또한 다를 거다. 그렇다면 지루할 때는 무엇을 하는가? 그건 아마 상황이 달라도 항상 같지 않을까? 어쨌든 똑같이 지루한 것이니 말이다. 나 같은 경우에는 친구를 쳐다보곤 한다. 수업 시간에 제각각인 반 아이들의 표정을 보는 게 재밌기 때문이다. 졸려 죽겠단 표정, 이미 졸고 있는 친구, 안경까지 벗고 시원하게 자는 친구까지. 아마 이놈들은 내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지 죽어도 모를 것이다. 그러니 이렇게 뻔뻔하게 지내는 것이겠지. 하지만 사실 진짜로 뻔뻔한 놈들은 따로 있다. 수업에 집중하는 줄 알았더니 나와 눈이 마주치는 놈들. 나는 아주 끝자리이기 때문에 나와 눈이 마주쳤다는 건 굳이 선생님을 가로질러 이 쪽을 바라봤다는 것이다. 그래 놓고 모범생인척하는 놈들이란. 이런 건 대부분이 모르는 비밀이다. 나처럼 대놓고 딴짓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한다. 딴짓을 해도 열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 진짜 모범생과 구분을 잘하는 건 본인들밖에 없다.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며 대화하곤 한다. 그러니 나중에 수업 시간에 눈맞춤을 하고 있는 놈들을 보면 입모양으로 말해주길 바란다. ‘싹!’



정다울

장벽 없는 세상을 꿈꾸는 베리어프리 동아리에서, 소중한 인연인 해초를 만나 이 글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던 시간이 모여 만든 이야기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읽고, 작은 온기 하나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분 속의 바다, 해초의 이야기

내 방 작은 책상 위에는 말이야, 나만의 작은 바다가 살고 있어. 화분이라는 아주 좁고 외딴섬에 갇혀 있지만, 초록빛 잎사귀를 훌렁훌렁 흔들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하더라. 마치 푸른 해류를 타고 온 바다를 여행하는 것처럼 정말 자유로워 보였거든. 이 아이의 이름은 나의 ‘해초’야.

처음 해초를 내 방에 데려왔을 때, 나는 그 작은 화분 벽 너머로 끝없는 바다의 길을 걷는 상상을 하곤 했어. 어느 날 화분 흙 위로 둥근 돌멩이가 툭 떨어졌는데, 처음엔 나를 향해 찌푸린 세상의 표정 같아서 조금 낯설었지만 이내 해초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더라.

햇빛이 찰랑이는 파도처럼 방안을 비출 때면, 해초는 매일매일 빛나는 보석함처럼 반짝이며 물결 속에서 춤을 추었어. 고래와 물고기들이 그 춤을 따라 헤엄치고, 신비로운 해파리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는, 우리들만의 비밀스러운 바다였지.

하지만 삶이 언제나 풍요로운 바다 같을 수는 없었어. 내 무심함과 바쁜 일상 탓에, 어느 날 화분 속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거든. 작고 여린 고사리인 해초는 본래 물이 늘 곁에 있어야 하는 아이라 가뭄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어야만 했어. 초록빛이던 잎사귀가 조금씩 말라가며 힘없이 고개를 숙이는데, 한 생명을 책임지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내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더라.

귀찮음이란?

귀찮음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귀찮음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번거롭거나 괴로워서 몸이나 마음을 움직이기 싫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귀찮음은 우리가 식물을 키우던 과정에 비유하자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게으름과 비슷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 뒤척이는 것 또한 게으름의 한 단면입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매일 쏟는 꾸준한 정성입니다. 하지만 귀찮다는 이유로 "나중에 주면 되겠지" 하며 돌봄을 미루는 순간, 식물은 금세 생기를 잃고 시들어버립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귀찮으니까 내일 해야지"라는 핑계로 할 일을 미루는 태도는 결국 자신을 귀찮음이라는 늪에 빠뜨려, 내 삶의 가능성마저 시들게 만드는 행동일 뿐입니다.

결국 귀찮음은 내 삶을 방치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당장의 번거로움을 이겨내고 매일 화분에 물을 주듯 정성을 다할 때, 식물이 예쁜 꽃을 피우듯 우리 삶도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귀찮음이라는 잡초에 흔들리지 않고, 내 삶이라는 소중한 화분을 기꺼이 가꾸어나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

안녕 나는 해초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조금은 의심했어. 정말 나를 잘 돌봐줄까? 아니면 그냥 잠깐 재미로 데려온 걸까?

나는 늘 목이 마르고, 혼자서 토라져 있긴 했어. 가끔 네가 와서 내 옆에 새로운 친구들을 놓아주기도 했지. 하지만 정작 나한테 필요한 건 물이었어. 손으로 몇 번 떠주고 가는 날도 있었지만, 그걸로는 늘 부족했어. 아무리 귀찮아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와줬으면 했어. 그게 내 희망이었거든.

비가 내리면 나는 꿈을 꺾. 언젠가 바다로 돌아가 파도에 흔들리고, 해마랑 물고기들이 내 곁을 지나가는 그날을. 하지만 지금은 작은 화분 속에서, 너를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혹시 내가 시들어 보일 때가 있더라도, 그건 네가 싫어서가 아니야. 오히려 네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야. 나는 단지 너의 손길을 기다리는 작은 해초일 뿐이야.

앞으로는 조금 더 자주 나를 돌봐주면 좋겠어. 작은 물 한 컵이면 돼. 그게 내겐 바다이고, 희망이고, 살아갈 힘이니까.

잘 있어. 그리고 곧 다시 만나러 와줘.

-너를 기다리는 해초가.-

해초에게 주는 작은 선물

안녕, 나는 다울이야. 널 만나기 전에는 그냥 똑같은 중학교 생활이었어. 매일 비슷한 하루, 책임 없이 죽어가는 식물들도 많았지. 너도 처음엔 그저 그런 식물 중 하나일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이곳 배리어프리에서 친구들과 함께 물을 주며 너를 기른 지 벌써 1주, 2주, 3주가 흘렀네.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는데, 매일 돌아보면 너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 옆의 친구들, 주희쫘와 해쫘도 같이 힘내며 버티고 있었지.

솔직히 말하면, 누가 안 준다고 나도 안 줄 때가 있었어. 귀찮아서, 힘들어서 그냥 지나친 날도 있었지. 그런데 결국 돌아보니까 네가 버티고 있는 모습이 보람이더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해초야.

앞으로는 더 자주 챙겨주도록 노력할게.

너는 하나뿐인 내 짝꿍식물이니까.

-하나뿐인 해초에게 다울이가 -



김단아

식물을 지켜보고 글을 쓰는 시간 안에서 ‘후회’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진 감정을 세밀하게 살피보며 그것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 생각을 그저 즐겁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소중한 식물 친구 행운이와 나의 다른 삶, 같은 내면

나의 소중한 친구 행운이는 나와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지 않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나와 닮은 구석이 참 많다.

친구들이 힘들 때, 우울할 때 옆에서 묵묵히 비를 가려주는 우산 같은 나와 같이 행운이는 흙이 혹여나 더워할까, 크진 않지만 조용히 그늘을 만들어 준다.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눈 앞에 있는 건 다 먹어 치우는 나와 같이 행운이는 물을 주는 족족 5분이 안 돼서 다 먹어버린다. 툭툭 튀는 성격, 우울한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유머, 할 땐 하는 집중력과 같은 나의 장점 재료들을 담은 스파게티처럼 맑은 초록색에 빛나는 잎, 단단하고 선명한 줄기, 예쁜 화분 같은 장점 재료들을 가진 행운이도 스파게티같다. 봄은 꽃도 많이 피고 날씨도 적당한게 정말 나의 마음에 쏙 들어버린다. 그리고 내 생일도 빠지지 않고 봄에 들어 있다. 그걸 아는지 행운이도 봄이 되면 잎을 활짝 피고 선명하게 색을 띄우는 것이 나랑 비슷한 것 같다. 아! 그리고 나랑 가장 비슷한 점은 바로 물을 엄청 좋아한다는 것이다. 나는 물 중에도 사실 보리차, 결명자차 같은 향이나 맛이 나는 차들을 좋아하는데 그래도 행운이는 아무래도 그냥 맹물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긴하다. 그래도 물 좋아하는 것은 진짜 닮은 것 같다.이렇게 나의 하나 뿐인 식물 친구 행운이와 나는 참 많이 닮았다.

식물과 사람, 우리 가족의 다른 듯 비슷한 이야기

식물과 사람은 비슷한 점이 많다. 사람은 본인이 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자신의 선택에 후회를 느끼게 된다. 식물은 계절을 착각해 엉뚱한 시기에 싹을 피웠을 때 후회를 하곤 한다. 사실 후회를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쓸모없는 일이다. 방법은 아주 쉽다. 그냥 후회할 짓을 안 하면 된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나 식물이나 가능한 일일까?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다 '후회'라는 것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가 후회를 가장 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매사에 집중하고 신중하게 고민하면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의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후회를 가장 덜 할 수 있게 나를 돕는 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 가는 길에 “바쁘더라도 한 번만 먹고 가”하는 엄마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 잔소리로 들리겠지만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가 학교에 가서

배고프지 않게 지금 한입 먹고 가라고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평소에는 잔소리로 들리던 말들이 점차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러면 어느 순간 부모님과 싸우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글을 읽고 사춘기 아이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싶다. 어쩌면 잔소리로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옆에서 잡아주고 지지해 주는 부모님의 잔소리는, 언제까지 들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부모님의 작지만 의미 있는 목소리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열쇠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서울

이 책에서 제 글은 대체로 즐거움과 뿌듯함을 다뤘습니다. 식물을 돌보며 즐거운 감정을 느꼈고, 이 책을 완성했다는 것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일은 제게 완전한 새로움이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경험을 만나며 때로는 부담감을, 때로는 두려움을 마주했지만 대체로 즐겁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고스란히 제 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제 식물의 이름은 라온입니다.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입니다. 다. 여러분이 제 글을 통해 라온을 알고 느끼길 바랍니다.

라온과 서울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베리어프리 책 만들기 동아리에 들어왔다. 모두가 자신의 식물을 갖게 되었고 나도 홍콩야자라는 식물을 맡았다. 홍콩야자인 내 식물의 이름은 라온이다. '라온'이라는 단어는 '즐거운', '기쁜',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라온'을 소리낼 때의 느낌도 좋는데 뜻도 밝고 긍정적이어서 내 식물의 이름으로 결정했다. 내 이름은 김서울이다. '학문에 빛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라온이의 이름도 행복한, 기쁜 등 밝은 의미인데 내 이름에도 '밝게'라는 의미가 들어있다. 직접 붙여준 이름으로 우리에게 공통점이 생겼고 나는 이 식물에 더 애정을 가지게 되었다. 전 주인에게 버림받은 라온이를 나는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다. 라온이가 이름처럼 나와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만 보냈으면 좋겠다.

초록으로 닮은 우리

식물은 각자 다른 모습과 향기를 가지고 자란다. 어떤 식물은 강한 햇빛 속에서도 버티고, 어떤 식물은 작은 틈에서 꽃을 피운다. 나는 그런 식물들의 특징이 내 장점과도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가는 것들을 발견하고 예쁜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나는 여행을 가거나 평범한 하루를 보낼 때도 사진을 많이 찍는다. 여행을 갔었을 때 조그마한 불빛을 찍은 적이 있다. 그 불빛이 마치 '희망을 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 전에도 모든 일에 최선을 다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불빛을 보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 라온이도 비가 오거나 햇빛이 짹짹 내리비치는 날에도 곳곳이 서 있다. 심지어 내가 물을 주는 것을 깜빡한 날에도 말이다. 이런 라온이의 모습이 희망을 품고 나를 기다리는 것 같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 나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라온이도 나에게 힘을 주는 것 같다. 물을 주거나 가끔 식물들을 보러 갈 때는 라온이 덕분에 힘을 얻게 된다. 라온이에게 물을 주러 갈 땐 라온이가 항상 나를 반기고 있는 것 같다.

희망의 싹

나는 희망이란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한다. 나의 식물인 라온이와 희망은 공통점이 있다. 그 공통점은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는 것이다.

라온이는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다. 작은 씨앗에서 작은 싹으로 점점 커져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희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고난과 역경, 또는 목표하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작은 희망을 하나 품으면 그 희망이 자라 꿈꾸던 미래의 모습을 갖춘 내가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 비로소 희망이 있다는 느낌이 든다. 특히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기 위해 준비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다. 무언가 해내는 일을 좋아하는 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며, 부담감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선생님, 친구들, 부모님 등 사랑하는 이들이 건네는 작은 응원 하나가 나에게 큰 희망이 되었다.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보면 어때?”, “지금 완전 잘했어” 등의 말들... 이 희망의 씨앗들은 내게 입상이라는 결과를 안겨주었다. 이 글과 책도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길 바라본다. 내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얻었듯 나 역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최사라

소박함에서도 행복을 찾을 줄 알고 ‘지금, 이 순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사람.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글을 쓰는 순간과, 사람을 만나는 순간들이 모두 소중했습니다. 어떤 이는 큰 꿈과 특별한 사건에서 행복을 찾지만 저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할 일이 있는 것이 모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계기입니다. 글에는 제 소중한 하루하루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쓰는 순간 역시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드립니다.

긍정적인 마음

나에게는 수많은 장단점이 있다. 당장 생각 나는 것만 해도 여러 개이다. 나의 대표적인 장점은 건강한, 자존감이 높은, 성실한, 열정적인, 긍정적인, 좋은 친구가 많은 것 등이 있다. 단점도 적지 않다. 손을 많이 물어뜯는, 회복하는 데 오래 걸리는,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낼 때가 많은 것 등이 나의 단점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도 모두 ‘나’를 설명하고 나타내주는 중요한 키워드들이 되지 않을까?

나의 셀 수 없는 장점 중 가장 중요하고 나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를 꼽고 싶다. 그 한 가지는 긍정적인 것이다. 나는 이것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유도 다양하다.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질 때가 많다. 사람은 생각과하는 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나에게는 긍정적인 성격과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오히려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다. ‘숙제가 내일까지잖아? 오늘은 핸드폰 하느라 게을러지지 않고 집중해서 앉아 있을 수 있겠다.’ 라든지, ‘배고픈데 먹을 게 없다... 그럼 살 빠지겠네? 우선은 뭐 먹지 말아야지.’, 같은 것들.

보통이라면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무기력해질 텐데 나에게는 그것들이 좋은 신호가 될 때가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면 지금 당장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새 너무나도 감사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떼면 숙제. 숙제가 없었다면 우린 어떻게 되었을까? 처음 며칠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갈수록 게을러지고, 머리를 쓸 일이 없으니, 뇌도 발전을 멈출 것이다. 배가 고픈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에 계속해서 음식물이 들어오고 지방이 쌓인다면, 머지않아 건강과는 거리가 멀어질 것이다. 이렇듯 당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울한 하루보다 행복한 하루가 많아질 것이다. 매일이 행복할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우울한 날이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이는 또한 나의 식물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채로 식물을 키운다면? ‘이 식물이 죽으면 어찌지? 내가 잘못 키워서 이상하게 자라면 어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단 다음 방식으로 생각하는 게 나은 것 같다. ‘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식물을 잘 키워서 좋은 주인으로 기억되게 해주자!’ 식물이 말은 하지 못하지만 나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다. 내가 자기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잘 키우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식물도 더 잘 자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무슨 계기로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게 된 걸까? 어렸을 때 좋은 일도 많았지만 힘든 일도 조금씩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안 좋은 기억들. 나는 오히려 그 경험들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은 버리게 되었다. 내가 어떠한 일에 대해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기분. 그래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우울해서 울고, 어느 때보다 기분이 안 좋아져서 아무 말 없어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면 된다.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단지 사람마다 걸리는 시간과 과정이 다르다고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너무 슬픈 기분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당장이라도 움직여 봤으면 좋겠다. 산책하거나, 청소하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개운하게 씻거나. 당장 자도 좋고, 운동해도 좋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도 좋다. 중요한 건, 바뀌는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 주변이 바뀌지는 않는다.

긍정적인 것은 단순히 안 좋은 일을 좋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분명 날 시험해 보려는 신의 계시일 거야. 그러니 잘 헤쳐나가 보자!’와 같이 일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인생을 별로 살아보진 못했지만, 긍정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그 누구든, 긍정적으로 살길 간절히 바라는 바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다양함’

내 식물, 죽백이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한 식물 같지만, 자세히 보면 매력적인 부분이 정말 많다. 길게 뻗어있는 줄기가 기린의 목 같기도 하고, 화분 안에 있는 흙이 마치 오레오의 검은색 부분과 닮았다. 잎 일부는 샛노란 색에 이어서 망고 같기도 하고, 잎 끝부분이 검은색으로 갈매기의 날개 모양처럼 갈라져 있기도 하다. 잎 모양의 무늬가 개미굴의 복잡한 연결 통로 같기도 하고, 넓은 잎이 꼭 우주 같기도 하다. 이 글에서 나는, 죽백이의 정말 다양한 특징 중 두 가지를 뽑아 써볼 것이다.

우선 죽백이의 줄기는 위로 길게 뻗어있어 마치 기린의 목 같다. 이건 나의 어린 시절 추억과도 직결되는 모습이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엄마와 미국으로 가 1년간 유학 생활을 했다. 가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과 문화를 만나고, 새로운 곳도 많이 가봤다. 그중 샌디에이고의 한 동물원에 가봤다. 우리나라가 시멘트 바닥에 유리창을 세워 동물들을 가둔 느낌이라면, 그곳은 넓게 펼쳐져 있는 초원에 울타리만 세워 동물들을 풀어둔 느낌이었다.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며 보다 생생한 관람을 할 수 있었는데 나는 그중 기린이 유독 기억에 남는다. 기린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먹이도 준 기억이 있다. 죽백이를 보면 그때가 떠오른다. 마치 금방이라도 하늘을 뚫어버릴 듯한 줄기. 나는 그 줄기만 봐도 뭐든 할 수 있고, 보는 내가 다 당당해지는 것만 같은 기분이다. 만약 내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어지는 날이 온다면, 죽백이를 보고 힘을 내고 싶다.

또 나에게는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아이돌이 있다. 2024 년 11 월 19 일에 좋아하기 시작해 오늘로 591 일째. 팬 사인회, 팬 미팅, 음악방송 사전 녹화, 팝업 스토어, 컴백 기념 이벤트, 콘서트 같은 곳을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서는 대부분 가게 해주셨다. 콘서트는 딱 네 번 봤다. 여기서 한번은 실제로 가서 즐기는 콘서트, 나머지 두 번은 이미 했던 콘서트를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걸 보고, 마지막 한 번은 아이돌이 이미 찍어둔 영상을 VR 로 볼 수 있는 VR 콘서트였다. 다른 아이돌들은 어떨진 모르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은 특히 콘서트에서의 연출이 매우 멋있다. 콘서트장 안에 조명과 함께 컨페티가 떨어지는 걸 보고 있으면, 꼭 우주에 온 것 같다. 죽백이의 앞도 우주와 닮았다. 줄기처럼 당당하고 멋있게, 넓게 퍼져있는 앞. 그래서 난 죽백이의 앞을 볼 때 최고의 추억으로 남았던 순간들이 기억난다.

이렇듯 우리에게 각자 다른 경험, 추억, 기억, 외모, 생각, 관점들이 있다. 내가 죽백이를 보고 떠오르는 것과 경험을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떠오르는 게 비슷하긴 해도, 거기에 얹혀있는 기억은 백 명을 불러도, 천 명을 불러도 하나같이 다 다를 것이다. 사람들이 나와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해도 그걸 모두 이해해 주고, 존중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각자 자라온 환경, 해본 경험, 나이, 성별, 종교, 사는 곳, 모두 다를 테니까.



조혜빈

동아리 활동을 통해 글을 쓰며 걱정이 많았습니다. 식물 라엘이를 바라보며 제 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이 되길 바라는지 고민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제 곁에서 묵묵히 위로를 주는 라엘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도 따뜻한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초록

대형 화원에는 수만 가지 식물이 산다. 사람들은 화원에 들어서자마자 스마트폰을 켜고 '키워드'를 검색한다.

#공기정화식물 #돈나무 #키우기 쉬운 것.

그 중심에 내가 있었다. 내 이름표에는 [염좌 : 부를 부르는 돈나무]라고 적혀 있었다. 사람들은 내 앞이 동전처럼 동글동글하고 윤기가 나서 돈이 들어온다며 나를 비싼 값에 사갔고, 나는 가장 좋은 영양제를 먹으며 자랐다. 하지만 어느 날, 잎끝이 살짝 시들었다. 주인이 발견하고 날 보며 인상을 찌푸렸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주인은 나를 보며 “돈나무가 시들었네. 시든 거 두면 안 좋다는데”라고 말했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버려졌다. '비싸고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도, 그 쓸모를 다했다고 느껴지면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었다.

그때 내 옆에 이름표도 없는 작은 나무 하나가 보였다. 그 나무는 나보다 훨씬 잎이 싱그럽고 줄기도 단단했다. 누구보다 멋져 보였지만, 사람들은 그 나무를 그냥 지나쳤다. 이유는 하나였다. '돈나무'라는 키워드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생각에 잠겼다.

'저렇게 멋진 나무도 키워드가 없으면 아무도 원하지 않는데, 키워드마저 잃어버린 나를 누가 원할까? 내 이름이 돈나무가 아니라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초록 덩어리일 뿐일까?'

마음을 먹고 옆에 있는 나무에 말을 걸어보았다

(돈나무) 안녕? 그 나는 돈나무야 너는 무슨 식물이야?

(정체 모를 식물) 어? 나는 나도 모르겠어.... 어차피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는걸.

(돈나무) 아니야 우리가 지금 구석에 있어서 그렇지 넌 진짜 멋있단 말이야.

(정체 모를 식물)아냐... 너보다 나는 돈나무처럼 막 비싸지도 않고 그냥 매우 흔한 식물일 뿐인 걸 그래도 고마워.

(돈나무) 누군가 널 알아보고 데려갈 수도 있어.

그때, 화원에 조금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있어 남들보다 시선이 조금 낮았지만, 누구보다 오랫동안 식물들을 바라봤다. 그녀는 화려한 '돈나무' 꽃말을 보지 않았다.

대신 휠체어를 멈추고 내 앞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쩔 이렇게 귀엽고 이쁜 식물이 있지?"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그는 내가 돈을 불러오는 나무라서가 아니라, 나의 모습 자체를 예뻐해주었다. 그녀는 내 옆의 이름 모를 나무에도 손을 뻗었다."이 친구는 향가 참 맑네. 이름이 없구나. 이렇게나 예쁜걸."나는 신이 났다.

(돈나무) 우리 같이 떠나는 거 아니야?

(정체모를 나무) 아냐. 나에게 그럴 일은 없을 걸.

(돈나무) 그런가. 하긴. 지금껏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하지만 다음 날에도 그다음 날에도 계속 그녀가 찾아왔다. 내 시든 앞을 다정하게 잘라주고 나무에 분무기로 물까지 뿌려주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세상이 정해준 '돈나무'라는 키워드는 사실 나를 도와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벽이었다는걸. 그 벽을 허물고 나니, 비로소 나의 진짜 잎사귀 색깔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돈나무가 아니어도 좋다. 누군가 붙인 이름에 걸려 선택받는 식물이 아니라, 나의 숨소리를 들어주는 사람 곁에서 그저 나다운 초록으로 살아가고 싶다.

푸르름

나에게는 '라엘이'라는 이름의 작은 염좌 한 그루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염좌를 그저 '돈을 부르는 돈나무'라고 좋아하지만, 내가 발견한 라엘이의 진짜 매력은 따로 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잃지 않는 푸르름, 그리고 두툽한 잎사귀 속에 감춰둔 단단한 수분이다. 나한테 그 수분은 마음이다. 염좌는 다른 식물들에 비해 잎이 특히 도톰하고 단단하다. 그 잎 속에는 식물이 가장 목마르고 힘들 때를 대비해 모아둔 수분이 있다. 비가 오지 않고 땅이 바짝 마르는 가뭄이 찾아와도, 라엘이는 쉽게 시들지 않는다. 미리 채워둔 잎사귀 속 수분을 조금씩 꺼내 쓰며 계속 푸른빛을 유지한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닮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누구에게나 마음이 바짝 메마른 '감정적 가뭄'의 시기가 찾아온다. 친구 관계가 꼬이거나, 노력한 만큼 시험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특히 나는 엄마와의 다툼, 친구와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슬퍼지곤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힘내는 것은 내 안에 비축해 둔 '자기 신뢰'와 '긍정적인 마인드'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이게 뭐든 일단 별일 아니니깐 걱정하지마.' 라엘이가 잎사귀 속에 수분을 비축하듯, 나 역시 평소에 밝고 긍정적인 기운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려고 노력한다.

그렇기에 힘든 순간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나만의 푸르른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메마른 계절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잎을 채우는 라엘이와, 마음의 가뭄을 긍정의 힘으로 노력하는 나. 우리는 참 많이 닮은 것 같기도 한 것 같다. 앞으로도 나는 라엘이 곁에서, 내 마음의 잎사귀를 더 단단하고 밝은 기운으로 가득 채워 나갈 것이다.

공유

사람도 다른 사람이 짜증을 내면 같이 짜증이 나곤 한다. 만약 내 식물 라엘이가 나와 감정을 공유한다면 어떨까? 학교 과제로 내 삶의 굴곡을 보여주는 '인생 그래프'를 그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약 라엘이가 내 일생을 전부 함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 말이다. 그래프를 보니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초등학교 입학과 학원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전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순간들은 위쪽으로 높게 그려졌다.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갇혀 답답했던 날들과, 초등학교 5학년 때 조금 일찍 찾아온 '중 2 병'의 순간들은 그래프의 맨 밑바닥을 뚫고 내려갈 것처럼 낮게 그려졌다. 또 보고 나니 내 감정의 기복이 마치 감정의 파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문득 책상 위에서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는 라엘이(염좌)에게 시선이 갔다. 이 인생 그래프에 담긴 내 감정들을 라엘이가 고스란히 같이 공유했다면 어땠을까? 생각만 해도 라엘이에게 미안하고, 참 힘들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내가 신이 날 때는 라엘이도 기분이 더없이 좋았을 테지만, 코로나로 우울해하거나 수학 학원 숙제 때문에 머리를 쥐어짜며 짜증을 낼 때는 라엘이도 그 기분

나뭇을 고스란히 받아내야 했을 테니까 말이다. 주인의 감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아무 말 없이 옆에 서 있는 식물이라고 어떻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마 내 마음의 흠이 바짝 마를 때마다 라엘이의 속도 같이 타들어 갔을지 모른다. 종이에 그려진 울퉁불퉁한 인생 그래프 선을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다. 앞으로 중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더 나이를 먹으면서 이 그래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요동칠 것이다. 더 기쁜 날도, 더 힘든 가뭄 같은 날도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내 감정을 묵묵히 나누어 가질 단단한 친구가 있다는 사실이다. 나를 보며 같이 피곤해하느라 라엘이가 시들시들해지지 않도록, 내가 힘들 때일수록 라엘이에게 물을 주며 내 마음도 함께 다독여야겠다. 비록 내 감정 파도를 같이 타느라 조금 힘들겠지만, 내 인생 그래프의 다음 페이지도 라엘이와 함께 채워나가고 싶다.



박세명

우선 이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간이 단편소설 쓰기를 즐기다, 동아리를 통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쓴 글 재밌게 읽어주시고, 이 책을 통해 조금이라도 근심·걱정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평범한 중학생이자, 선인장입니다

내 식물은 드라세나 스투키이다. 드라세나 스투키의 특징은 줄기가 굵고 끝부분이 뾰족하다는 것이다.

내 식물 드라세나를 보고 생각난 것은 선인장이다. 줄기 끝부분이 뾰족한 게, 선인장의 가시와 유사해 보였기 때문이다. 내게 선인장은 어떤 존재일까? 내게 선인장은 무섭고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선인장 몸통에 난 가시에 찔리면 아프고, 박힌 가시는 잘 빠지지 않을 뿐더러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를 알고 나서는 선인장을 인간에게 해가 되는 식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선인장은 내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인간에게 이로운 점이 더 많았다. 선인장은 여러 약의 재료가 되기도 하고, 토양을 보호해주고, 공기를 정화하며, 물이 많이 없는 사막 지역에서는 동물들에게 훌륭한 식수원이 되어줌과 동시에 안전한 보금자리까지 되어주는 아주 이로운 식물이다.

독자들이 이 글을 보며 자신의 얼마 없는 단점을 가지고 짜증 내거나 슬퍼하기보다는 자신의 장점을 찾아 집중하며 늘 행복하고 즐겁길 바란다. '난 장점은 커녕 단점밖에 없어' 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장점은 멀리서, 어렵게 찾는 것이 아닌 가까이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장점이 정말 없는 것 같고, 못 찾겠다는 생각이 들면 만들면 되는 것이다. 장점을 만들 때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단한 장점이 아니어도 된다. 정말 사소한 것, '난 밥을 잘 먹고 방을 잘 치워!' '친구들과 잘 지내!' '책을 읽을 때나 수업을 들을 때 집중을 잘해!' 등 아주 사소한 모든 게 장점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서 찾고, 만들길 바란다.

움직이지 않아도 나는 매일 자란다

난 드라세나다. 내가 지금의 주인을 만나기까지의 험난한 여정을 알려주겠다. 나는 처음에 한 마트 진열장에서 지냈다. 진열장은 차갑고 딱딱했다. 그런 공간이 내게는 달갑지 않게 느껴졌고, 공간에 적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공간에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 마트에서 장을 보던 사람의 눈에 띄었고 그 사람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마트 진열장과 다르게 따뜻하고 포근했다. 햇살도 마음껏 받고, 물도 잔뜩 먹으며 사랑받는 것은 이런 느낌이라는 걸 알았다. 사랑을 잔뜩 받다 보니 내 앞은 주체 못 할 정도로 자랐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주인이 날 실수로 밀쳤고, 내 화분이 깨져버렸다. 몇 개의 잎은 떨어지고 꺾여 정말 아팠다. 머지않아 또 하나의 시련이 왔다. 주인이 내게 물을 주지 않고 길게 여행을 떠나 내 앞이 마르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적은 처음이어서 당황스럽고 무서웠다. 잎이 하나씩 축 처질 무렵 주인이 돌아왔다.

주인은 나의 상태를 보고 급하게 물을 잔뜩 먹였다. 다행히 난 죽지 않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후 평소와 같이 사랑받던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집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었다. 혹시 버려지는 걸까 두려움에 잠겨 있을 때 지금의 주인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새 주인이 전 주인처럼 나를 또 버릴까 두려웠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가장 바보 같은 생각이었다. 지금 만나게 된 주인은 생각보다 더 좋았고, 난 더 행복해졌으니 말이다.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큰 시련이든 작은 시련이든 그것이 지나면 그에 맞는 행복과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고. 그럼 난 이제 주인의 사랑을 받으러 가보겠다!



박채원

같은 일을 반복하던 시간을 벗어나 깊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퇴고 과정에서 스스로의 글을 읽으며 소중한 것은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제 평범한 이야기로 잠시나마
숨을 고르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 곁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어색한 공기가 돌았다. 말 하나 없는 생명체지만 어색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느낄 수 있는 공기였다.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는 성격은 아니다. 식물이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처음에 나는 식물이에게 물만 주는 로봇 같은 존재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친구 관계가 좋지 않거나 숙제가 많아 스트레스를 느낄 때면 식물이에게 물을 주며 감정과 생각을 터놓게 되었다. 늘 같은 자리에 있던 식물이지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늘어나자, 비로소 식물이 내 곁에 있는 기분이었다. 나의 새로운 관심사가 생긴 듯했다. 그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사람들은 항상 기분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고 도망치기를 반복하지만, 식물이는 언제나 내 곁에 있다는 것을. 식물이는 이제 나에게 존재만으로 든든함이 된 것 같다.

식물이도 무시받고 외로웠던 상황을 지나 이제는 충분한 관심을 받는 듯하다. 말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고, 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식물이지만 조그마한 관심이 더해지자,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식물이는 늘 같은 곳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그 자리가 아닌 ‘내 곁’에 있다.

완벽하진 않아도 충분한 것

나의 특징을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면 시계, 견과류로 나타낼 것이다. 구체적인 사물로 나타내보니 식물하고도 닮은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식물을 ‘그’라고 부르며 글을 써보겠다. 시계는 천천히 흘러간다. 그리고 초침, 분침, 시침이 있다. 아 세 개의 바늘은 모두 돌아가지만, 속도가 다르다. 때로는 같은 곳에서 만나 부딪치기도 하며, 영원히 계속 돌아간다. 나도 그렇다. 선택이나 고민, 실행의 순간 내 안에 드는 여러 생각들이 부딪혀도 이겨내고, 이어 나간다. 매일 다를 건 없어 보여도 꾸준히 물을 받으며 나름 곳곳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는 ‘그’의 모습도 비슷하다.

견과류의 겉모습은 작지만, 선물로 많이 오갈 정도로 영양소가 풍부하고 필요한 것이 모두 포함되어있다. 나 역시 겉으로는 텅텅해 보이고 가끔은 멍청해 보여도 필요한 순간에는 가장 중요하게 빛날 수 있다. ‘그’는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보여도 가끔 외로운 누군가를 돕고 쉽게 친구가 되어주는 존재다.

어쩌면 모두가 자신의 성격을 비판하거나 다른 무언가에 불평하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주위에 있는 것들과 공통점을 찾고 진심으로 그들이 가진 장점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완벽하진 않아도 자신이 가진 가치를 긍정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김지유

키우는 식물 연두를 죽일까 봐 졸고 있는 김지유입니다. 화분과 친했던 경험이 없는 제게 예민한 연두는 공포스러운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연두 덕분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글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벼락치기로 글을 쓰던 게으른 작가였지만 끝내 완성했음에 의의를 두겠습니다.

PS. 연두는 원래 잎이 연두색이어서 연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변해 이제 노랑이로 바뀌야겠습니다.

예민하지만 정이 들어버린 연두

To. 연두

연두야 안녕! 너를 죽일까 봐 두려운 주인 지유야! 너는 너무 예민하거든! 넌 왜 물을 줘도 시들고, 안 줘도 시드는 거니?

처음엔 너를 걱정하느라 스트레스받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너에게 정이 드는 것 같아. 나에게 ‘정’이란, 단순히 ‘그립다’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키워주고 싶고, 절대 잃고 싶지 않은 존재가 생긴 것을 뜻해. 그러니 노란색인 네 잎이 연두색으로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키워줄게. 아! 물론 연두색이 되더라도 계속 열심히 키울 거지만….

하루에 한 번 널 보러 간다는 약속은 어겨도, 네가 계속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은 꼭 지켜보려 해. 사실 요즘 너를 너무 안 보러 간 것 같아서 미안했어. 나의 게으름 때문에 네가 더 많이 시들고, 더 외로웠을 것 같다….

돌이켜보니 처음 널 만났을 때 네가 정말 예쁘게 생겼고, 게으른 나도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를 선택했거든. 예민하긴 하지만 내가 고른 식물이고, 잘 키워보겠다고 한 식물이니 널 끝까지 잘 살려볼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널 죽일까 봐 걱정하지 마! 그동안 내가 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때문에 네가 시들고, 노랗게 변한 것 같더라고... 넌 산세베리아여서 물을 많이 주면 안 되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물을 많이 준 것 같아. 찾아봤을 때 넌 물을 한 달에 한 번 주는 거라고 해서 나 한 달에 한 번 물을 줬는데...! 그것도 많았던 건가?

반성해, 지유야...

To. 지유

안녕 지유야? 나는 네가 키우고 있는 식물인 연두야!

일단 부탁할 게 있어. 물 좀 잘 줬으면 좋겠어. 나 심심하고 목도 말라 지유야. 요즘 물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초록색이었던 잎이 노랗게 변했어. 앞으로 잘 좀 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내가 이해 해볼게. 너도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느라 바쁘잖아. 그리고 노란색 잎도 나름 예쁜 거 같아! 그래도 시간 날 때 한 번씩 내려와줘. 요즘 너무 많이 안 왔다.

나를 잘 키우고자 노력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나를 열심히 잘 키워줘~ 나도 너무 예민하게 굴지 않을게!

원래 이전 주인은 엄청 꼼꼼한 분이셔서 나도 꼼꼼한 주인을 원했거든? 처음 만났을 때 넌 나에게 관심이 정말 많아 보였어! 조금 게을러 보이긴 했지만... 나도 너에게 점점 궁금한 점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 너의 곁에서 살다 보니 꼼꼼한 것도 좋지만, 여유롭고, 느슨하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다는 것을 느꼈어. ‘꼼꼼함’만 선호하던 나에게 여유도 좋은 것이라는 점을 알게 해줘서 고마워.

-지유를 이해하고 있는 연두가 -

연두를 만나기 전과 후

연두를 만나기 전까지 나는 식물에 관심이 없었을뿐더러 잘 키울 자신도 없었다. 처음 동아리에서 직접 원하는 식물을 고르니, 열심히 키우고 싶었고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았다. 산세베리아인 연두는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키우며 한 달에 한 번 물을 줘야 한다고 한다. AI 가 말하는 대로 물도 적게 주었고,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되는 학교 주차장에서 키웠는데 초록색이던 잎의 끝부분이 노랗게 변해버렸다.

연두를 키우면서 내가 좀 더 부지런해진 것 같다. 점심시간이면 급식을 다 먹고 교실에서 쉬곤 했지만, 요즘은 급식을 다 먹고 친구와 연두를 보러 주차장에 갔다가 교실로 올라간다. 가끔은 귀찮을 때도 있지만 나를 부지런하게 만든 연두에게 고맙다. 앞으로는 연두를 잊지 않고 하루에 한 번은 보러 갈 것이다. 그러면 연두도 나를 더 좋아하겠지?

연두를 만나기 전보다 내가 더 밝아진 것 같다. 물론 옛날에도 밝았지만, 연두를 만난 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때가 늘었다. 연두에게 고마운 점이 많은데 나는 연두에게 물도 안 주고 괜히 연두가 시든 걸 탓하기만 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 자주 연두를 보러 가야겠다.



이민하

초록빛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시간을 당신께 보냅니다.

푸른빛 첫인사

안녕! 나는 너의 식물, 핑크공주야.

너를 처음 봤을 때 하얀 피부와 올려뭍은 머리가 인상적이었어.

하얀 피부를 보며 겨울의 눈을 떠올렸는데 너와 눈은 하얗다는 것 외에 내면적으로도 공통점도 있는 것 같아. 일단 내면의 순수함이 닮은 것 같아. 겨울에 내리는 눈이 맑고 깨끗한 것처럼 너도 마음이 순수하고 하얀 듯해. 흐트러진 묶음 머리도 너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 해주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는 너만의 자유로움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같거든.

너를 만난 후로 물과 햇빛을 충분히 받게 되었어. 나를 아끼고 사랑해 주는 네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많이 고마워.

처음 네가 나를 선택했을 때, 솔직히 별로 좋지는 않았어. 나를 잘 보살펴주지 않을 것 같은 의심이 들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그 마음을 후회해... 이제 와서 보니 너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남을 사랑하고, 식물인 나를 단지 소품이 아닌 새로운 친구로 여겨주는 것 같거든. 앞으로 우리 서로 더 깊은 사이가 되자!!

또 다른 친구

안녕 핑크공주. 난 너의 친구인 이민하라고 해. 동아리 첫 시간에 담당 선생님들이 여러 식물을 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서 나는 ‘책 쓰는 동아리에서 굳이 왜 식물을 키워야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 하지만 직접 너를 키워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인 친구한테 못했던 말들을 너한테 하게 되더라고. 나는 다른 친구와 싸우거나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을 잘 못하거든, 그런데 너한테는 딱히 막막한 감정 없이 술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너에게 물을 충분히 준 것 같은데 요즘 네가 시들더라고. 네가 사람이라면 물이 부족한지 넘치는지 직접 말해 줬을 텐데 조금 아쉬워. 너의 꽃말이 ‘장수’라던데 꽃말처럼 너도 장수했으면 좋겠다. 우리 같이 장수 하자! 사랑해.

나의 생명체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반복적인 일상을 보내던 저는 배리어프리 책 만들기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동아리에서는 직접 키운 식물과 나에 대한 글을 쓰는 활동을 합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식물과의 우정을 쌓았습니다. 동아리 시간마다 식물의 초록빛을 보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어릴 적 ‘예쁜 말 굴’과 ‘나쁜 말 굴’을 키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쁜 말을 해준 굴은 상처 없이 깨끗하게 컸고, 나쁜 말을 한 굴은 점점 쪼그라들고 못생겨졌습니다. 이후 저는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식물을 친구로 맞아줍니다. 하지만 종종 식물을 단지 ‘인테리어 소품’으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식물도 우리와 같이 숨을 쉬고 감정을 느끼는 생명이므로 아끼고 보살펴줘야 합니다.



이지연

꽃이 피고 지며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빨간 단풍이 물들 때까지 많은 친구,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10 번에 걸친 수업을 통해 많은 감정을 느꼈고 그 감정이 제 글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마주하고 글을 통해 공유하기까지 아주 많은 고민이 오갔습니다.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의 감정을 마주할 기회를 얻길 바랍니다.

사전에서 찾을 수 없는 즐거움의 정의

저는 즐거움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집중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서 즐거움에 대한 정의는 한가지로 통일되지만, 사람마다 즐거움의 정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무엇을 할 때, 어떤 형태로 즐거움을 느끼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좋아하는 것을 할 때나, 좋아하는 사람들과 있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을 끝까지 해내 성취감을 느낄 때, 시간 감각 없이 몰입할 때,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학교가 끝나고 노래방에 가서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노래(옛날 노래, 발라드, 밴드음악)를 부를 때나,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플라잉 디스크(얼티미트)를 하면서 아무 잡념 없이 오직 경기에만 집중할 때, 일 년에 딱 한 번 있는 체육대회 입장식 안무를 하며 친구들과 행복한 추억을 만들 때 등. 제가 즐거움을 느끼는 때는 아주 많습니다. 저는 아주 사소한 것을 할 때라도 친구들과 함께일 때 가장 즐겁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은 무엇인가요? 저는 여러분이 즐거웠을 때를 추억하며 즐거움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움의 정의를 단정 짓지 말고, 자신만의 즐거움의 정의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우정은 빛이 되곤 한다]

우정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친구 사이의 정'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저에게 우정의 깊이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정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많은 감정과 생각이 담겨있는데 그중에서도 '희망'이 우정에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어두운 밤 밝은 빛이 되어주는 달과 별처럼, 친구는 어둠 속에 있는 저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존재만으로 큰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친구의 작은 조언 한마디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갈림길에서 방황할 때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곁을 지켜준 친구, 자신을 희생하며 저를 도와준 친구를 만나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우정이란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희망을 안겨주는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어떤 존재이며, 친구는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장서현

공부에 찌든 평범한 중학생. 힐링 방식은 배우나 아이돌을 보는 것입니다.

다양한 글을 쓰고 책을 내는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해냈습니다. 그러니 제 글 좀 읽어주세요.

식물에 관한 생각 변화와 그 이유

이피는 처음 만났을 당시 상태가 좋지 않았다. 나를 만나기 전까지 주인이 여러 번 달라졌다고 들었는데, 앞에는 벌레를 먹은 듯 커다란 구멍도 가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이피가 상태가 좋지 않은 이유는 환경이 자주 바뀌고 주인들이 잘 돌봐주지 못해서’라고 생각했다.

이피는 나를 만나기 전까지 주인이 세 번 달라졌다. 이피를 처음으로 키운 주인은 시골에 사는 노부부였다. 그 부부는 서울에서 바쁘게 일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다. 자식들이 전부 결혼하고 난 뒤에 시골로 내려왔다. 부부는 자식들이 다 결혼해서 집에서 가만히 놀기만 하던 게 어색하고 지루해졌다. 그래서 부부는 예전부터 키우고 싶어 했던 식물을 처음으로 키우게 되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식물을 파는 곳으로 가서 부부가 생각하기에 예쁜 식물을 샀다. 부부가 산 식물은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식물인 이피다. 부부는 이피를 자기 자식처럼 키웠다. 매일 시간에 맞춰서 물을 주고 햇빛도 잘 드는 곳에서 식물의 상태를 보가면서 알맞게 조절해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이피를 키우기 힘들어졌다. 부부의 건강이 많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부부는 자식과 며느리에게 이피를 주게 되었다.

자식 부부는 시골에서 서울까지 데려온 이피를 정성껏 키웠다. 하지만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피를 잘 돌보기란 생각보다 힘들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늦은 밤 집에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자연스레 이피를 챙기고 신경 쓸 시간도 점점 줄었다. 이피의 앞은 점점 시들고 힘이 없어졌다. 부부는 더 이상 이피를 잘 키울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피를 잘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을 찾기로 했다.

이피의 새로운 주인은 식물을 좋아하는 대학생이었다. 대학생은 이피를 처음 보자마자 꼭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넷으로 식물 키우는 방법을 찾아보고, 물 주는 시간도 정해서 규칙적으로 돌보았다.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 이피를 두고 매일 상태를 살펴보았다. 이피는 점점 회복하기 시작했다. 잎도 다시 초록색으로 변하고 새로운 잎도 나왔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인 대학생도 학교 공부와 아르바이트 때문에 점점 바빠졌다. 어느 날은 물 주는 것을 깜박 잊고, 며칠 동안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다. 이피는 다시 시들기 시작했다. 결국 대학생도 이피를 더 잘 키우지 못하고 다른 주인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나는 이피를 만나게 되었다. 나는 원래 식물을 좋아하지도 않고 딱히 키워보고 싶은 목표도 없었다. 하지만 이피의 앞에 있는 구멍을 보며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생명을 책임질 때는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환경에서 포기하지 않고 키우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 말이다.

이피의 속마음

안녕, 나는 이피야. 나를 잘 키우던 노부부에서 갑자기 주인이 바뀌었을 때 많이 당황했어. 노부부는 나에게 처음으로 사랑을 주고 나를 잘 보살펴준 사람들이야. 하지만 노부부가 나를 새로운 부부에게 맡기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부부의 집에 가게 되었어. 새 주인들은 처음 몇 달간 나를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또 다른 주인에게 보냈어. 너를 만나기 전에 나를 키웠던 마지막 주인은 대학생이었어. 그 대학생은 생명과학을 공부한다고 했지. 그래서 나를 전문적으로 돌봐줄 것 같다는 기대도 있었어. 대학생도 며칠은 나를 잘 돌봐주었어. 물도 잘 주고 내 앞들에 있던 상처들을 치료해 주려 노력했지. 하지만 학교생활을 하면서 점점 내게 소홀해졌어. 그 뒤에 나를 버렸지. 주인이 여러 차례 바뀌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당히 적응할 때쯤 다시 주인이 바뀌는 게 반복되었어. 그래서 너를 처음 만났을 때도 네가 날 잘 키워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과 걱정이 많았어.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안심이 돼. 네가 나를 보러 와, 정성껏 돌봐줄 때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거든. 덕분에 불안한 마음들과 걱정들이 많이 사라졌어. 나는 잠깐이라도 너를 보면 행복한 감정이 들어. 나 잘 키워줘.

잘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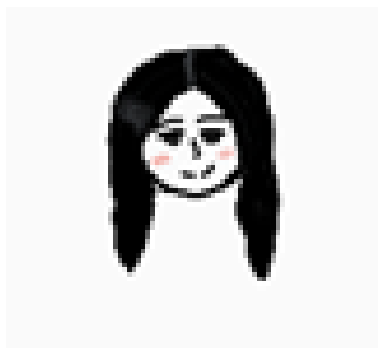
사람들에게 ‘장점과 좋아하는 것’을 물으면 쉽게 답하지 못한다. 나는 왜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답을 못 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막상 나 역시 ‘장점과 좋아하는 것’을 쉽게 답하지 못했다. 이 글을 쓰며 곰곰이 생각하고 답을 찾아보려 한다.

우선 나의 장점은 지적에 수궁이 빠른 것이다. 전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지적에 대해 반항하거나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변화가 없으면 똑같은 지적을 계속 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지적받을 때면 최대한 빠르게 수궁하고 바꾸려 노력한다.

두 번째 장점은 도전을 좋아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일을 좋아해 여러 도전을 해왔다. 이 장점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세 번째 장점은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다. 어렸을 때는 배움 자체를 단순히 지루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중학교에 올라오고 여러 과목과 어려움을 마주하며 오히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에 재미가 들었다. 하지만 싫어하는 과목은 여전히 즐겨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각자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또한 각자 다르다. 그래서 당장 좋아하는 것이나 장점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언제든지 여러 가지 경험과 방법으로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을 찾을 수 있다. 서두르지 않고 많은 경험과 도전을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나희

저는 식물을 책임지고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부족한 보호자였지만 그럼에도 무화과는 강하게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처음과 달리 굶어진 줄기를 보며 기쁨을 느꼈던 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처음으로 식물이란 존재에 시선을 두고, 관찰하며, 글을 써본 경험 역시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무화과와 즐겁게 성장해 보겠습니다.

나의 첫 식물, 무화과에 대해

내가 키우는 식물은 아보카도 나무다. 나를 만나기 전 국어 선생님이 키워주셨는데, 처음 나에게 왔을 때 식물이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예전에는 식물이 자라기에 적절한 햇빛과 바람이 드는 곳에서 편하게 자라고 있었을 것이다. 물도 규칙적으로 받고 지속적인 관리를 받으며 지냈을 텐데, 내가 키우게 되면서 예전만큼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든다.

아직 나는 식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모든 것이 서툴지만, 앞으로 물을 주는 주기를 잘 체크하고 햇빛도 꾸준히 보여주며 책임감을 느끼고 열심히 키울 것이다.

식물과 주고받는 편지

처음 만났을 때 무화과는 줄기가 가늘고 깔끔한 모습이었다. 지금은 줄기가 두꺼워지고 잎도 더 풍성해졌는데 벌레가 갉아 먹은 흔적이나, 잎이 썩은 곳들이 보여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서 무화과에게 편지를 써보려 한다.

무화과에게

안녕, 무화과야. 나는 너의 주인인 나희야!

처음 내게 왔을 때 너는 참 깔끔하고 예쁘게 잘 관리되어 있었는데, 내가 아직 서툴고 부족해서 너를 시들게 만들어 미안해. 앞으로는 물주기를 잊지 않고, 전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서 너를 돌볼 거야. 서툰 손길이지만 네가 다시 예뻐지도록 노력할게. 약속할게.

너의 이름을 무화과라고 지은 이유는 네가 무화과나무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야. 사실은 원래 무화과나무 안 줄 알고 무화과라고 지었는데 알고 보니 아보카도 나무인 거야 나 너무 너에게 관심이 없었지? 미안해. 앞으로 너에게 더 관심을 가져보도록 할게!

무화과에게 -나희가-

나희에게

안녕 나희야. 나는 네가 기르고 있는 식물 무화과야!

나를 키우고 보살펴줘서 고마워.

덕분에 줄기가 탄탄해지고 잎이 풍성한 걸 느꼈어.

하지만 더 정성을 들어서 나를 키워주었으면 좋겠어. 서툰 관리 탓에 내
잎이 조금 썩어버렸거든. 내가 너의 게으름까지 이해해 줘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가 날 잘 키워보겠다는 의지가 보이니 내가
마지막으로 봐주는 거야!

내가 더 시들기 전에 지금이라도 열심히 키워 봐. 알겠지? 나도 더
예쁘게 크도록 노력해볼게.

그리고 나 무화과나무 아니야. 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난 무화과나무가
아니고 아보카도 나무야 꼭 기억해줘!

나희에게 -무화과가-

나의 닮은꼴, 모아나

아보카도 나무인 내 식물에 무화과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아보카도 나무가 무화과나무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다. 문득 나와 비슷한 존재는 무엇일지 고민하다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모아나를 떠올렸다. 내 진한 눈썹과 어두운 피부색이 모아나와 많이 닮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모아나를 닮았다고 느끼는 핵심 요소는 성격이다. 모아나는 거친 파도에서도 굴하지 않고 낮은 바다를 정복하는 승부욕을 가졌다. 나 역시 지는 것을 싫어하고, 목표가 생기면 무조건 끝을 보는 성격이다. 7 살 때 달리기 시합에 지고 싶지 않아서 빠르게 달리다가 멈추지 못해 벽에 코를 박아 병원에 간 적도 있다.

또 새로운 모험을 하는 모아나의 도전 정신도 나와 닮았다. 나는 가끔 익숙한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로 학원에 가고, 안 먹어본 음식도 도전해본다.

내가 닮은 것과 그 이유를 쓰고 보니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최승아

안녕하세요. 저는 수학을 싫어하고 사회와 역사를 사랑하는 최승아입니다. 저에게는 여러 명의 동생이 있습니다. (사람 아님) 그중에서도 이 글의 주인공인 베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나는 벤자민 고무나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베나는 이파리가 참 많고 바르게 크고 있습니다. 한국식 이름은 배나 이고 외국식 이름은 베나 입니다. 배나의 한자 뜻을 알려드릴게요. 최: 해주 최(崔), 빛날 배 (裴), 유연할 나 (娜). 태도가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주변을 밝게 비추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재밌게 읽으시길.

CHAPTER.1 베나가 사람이 된다면?

베나가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떤 성격을 가졌을지 어떤 생김새를 가졌을지 생각해 봐야겠다.

베나의 성격은 나와 닮았을지 아니면 다를지 궁금하다. 나와 같다면 아무래도 시끄러울 것 같지만, 아니라면 조용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본 베나의 모습으로 상상해 보니 조용할 거 같기도 하다. 존재감이 강하지 않으니 말이다.

나는 조용한 것보다는 시끄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다. 조용하면 심심하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았다. 대화하다 보면 혼자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인 것 같다. 지금은 혼자 있는 게 편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시끄러운 것이 좋다. 사실 나는 집에 혼자 있을 때도 적막한 게 싫어서 TV 를 틀어 놓기도 한다. 조용한 집이 싫어서 노래를 틀어 놓고, 영상을 볼 때도 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무서운 걸 자주 봐서 조용하고 혼자인 집이 무서웠던 것 같다. 예전에는 집에서 나가는 순간이 무섭기도 했다. 함께 집에 있던 귀신이 따라 나오면 어쩌나,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걱정을 한 적도 있다.

혼자 있는 느낌을 싫어해서 더 베나가 움직이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베나를 보고 있으면 시간이 잘 간다. 베나를 처음 집에 데려왔던 날에는 베나의 수액을 보고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지금은 다행히 더 이상 수액은 나오지 않는다. 지금은 흙 속에 톱토기라는 벌레가 생겨서 징그럽지만, 화분에 뜨거운 물을 부을 수는 없어 같이 기르고 있다. 월요일에 학교에 가서 다시 데려오고 물을 줘야 하는데 그때는 어떡할지 막막하다. 베나가 사람이 된다면 박박 씻기겠지만 식물이라서 그럴 수 없으니, 살충제를 써야겠다.

나는 베나의 뿌리를 뽑아서 박박 닦고 흙을 갈아줄 용기는 없지만 살충제로 해결이 안 된다면 결국 해야 한다. 벌레 다 때려잡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다. 밤에 들어오는 모기나, 거미 등 벌레가 나에게는 괴담 그 자체다. 제일 무서운 도시 괴담 벌레. 나에게는 여름의 뭐든 다 좋지만, 벌레만은 절대 좋지 않다. 오늘 밤에는 벌레 없이 평화롭게 자고 싶다. 베나도 학교에서 벌레 없이 편안히 자기를 바란다. 이 더운 날에 벌레까지 있으면 지옥이니까. 월요일부터는 베나와 함께 에어컨 바람을 쐬는 거로 하고 베나에게 응원의 메시지로 끝내도록 하겠다. 베나야 파이팅! 자연을 느끼다가 와! 곧 인공적인 바람을 느끼게 될 테니까 자연을 만끽해! 잘 자.(베나야 고맙고 사랑해) 베나: 애 왜 이래.

CHAPTER.2 베나랑 여행하기

베나가 사람이 된다면 같이 가보고 싶은 곳은 놀이공원과 방탈출 카페다. 나는 예전에 친구들과 함께 가봤던 곳을 베나와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방탈출

방탈출 카페에 가고 싶은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보고 싶은 곳이었기 때문이다. 유튜브에서 방탈출하는 영상을 본 뒤 공포 방탈출 해보고 싶지만, 친구들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베나와 가면 꼭 공포 방탈출을 해보고 싶다. 예전부터 무서운 걸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내 지인들은 무서움을 즐기지 않는다. 하지만 베나는 공포도 함께 즐겨줄 것 같다. 나는 베나와 하고 싶은 게 참 많다. 베나와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보기만 해도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베나는 식물이라서 함께 가지 못하지만 나는 함께 간다는 생각으로 찾아보는 게 너무 즐겁다. 만약 베나가 사람이 된다면 정말 같이 가보고 싶다.

- 놀이공원

어릴 적엔 놀이공원에 관심이 없었지만, 지금은 놀이공원에 가는 게 좋다. 그래서 베나와도 같이 가보고 싶다. 사람들은 롯데월드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나는 서울랜드를 제일 좋아한다. 사람도 많지 않고 귀신의 집도 있기 때문이다. 벌써 세 번이나 갔지만 한 번도 귀신의 집 예약에 성공한 적이 없다. 그래서 베나와 갈 때는 꼭 귀신의 집 예약에 성공하고 싶다. 나에게 괴담이란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장르다. 심심할 땐 괴담을 찾아보고 여름철이 되면 ‘심야괴담회’라는 TV 프로그램을 꼭 찾아본다. 예전에는 녹화까지 해놓고 봤을 정도였다. 화요일에 집에서 베나를 옆에 두고 ‘심야괴담회’를 볼 예정이다. 월요일을 극복하고 화요일에 학교 다녀와서 보면 7 교시의 피로가 싹 풀릴 것이다.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나는 금기 사항 도시 괴담이 누군가의 경험담 형태로 들려올 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그럼, 나중에 귀신의 집에 가보는 걸로!

CHAPTER.3 베나의 속마음

학교 관련 Q & A

Q1. 학교에 가는 것은 좋은지

A. 딱히...? 좋지는 않아요. 그냥 시끄러워서 깨면 이상한 데 있으니까.

Q2. 학교에 납치당하는 건지 아니면 가는 건지

A. 납치죠. 100% 아니, 아니 99% 납치입니다~

Q3. 학교에 다녀보는 건 어떤지

A. 학교에 정말 다녀본다...? 힘들지만 재밌을 거 같아요.

Q4. 학교에 간다면 좋아하는 과목은 무엇인지

A. 아마 체육 또는 영어 좋아할 거 같습니다.

Q5. 고른 과목들의 어디가 좋은지

A. 체육은 말 안 해도 될 거 같고, 영어는 평소에 자주 봐서 좋습니다.
그쪽은 좋아해?

-둘 다 싫어합니다.

Q6. 싫어하는 과목도 있는지

A. 수학이랑 과학 별로, 둘 다 이과라 그런지 재미없습니다.

Q7. 그럼, 결과적으로 학교 다녀볼 의향 있으세요?

A. 네.. 같이 가준다면 가볼게요.

동생이 생긴 소감 Q & A

Q8. 동생이 둘, 아니 이제는 여섯인데 어떠신지

A. 아니 어찌다 그렇게... 그래도 착하고 나의 따까리가 생겨서 기뻐요

Q9. 동생들의 이름은 다 외우셨는지

A. 그걸 어떻게 외웁니까!!! 세 명도 다 까먹었는데. 그 새로운 친구들 이름은 뭐니?

-행운이, 행복이, 레나란다.

Q10. 벤자민 고무나무 동생은 어떠신지

A. 벤자민 고무나무 입양 안 했잖아. 행운목이랑 다른 나무잖아.

-내가 입양한 거 아니란다.

Q11. 동생들 부려 먹을 건지

A. 응. 부려 먹을 거야.

Q12. 동생이 있는 건 어떤 기분인지

A. 음 시끄러운 느낌. 그래도 좋다.

Q13. 잘 해줄 건지

A. 그래도 잘해줄게. 뺨은 되어주지.

추가 Q&A

Q14. 좋아하는 간식 있는지

A 편의점 가면 꼭 먹는 간식 하리보 맛있어.

Q15. 따로 좋아하는 간식 있는지

A 감 씨 과자. 그거 되게 좋아해

Q16. 아이스크림 좋아하는지

A. 좋아 너무 좋아.

Q17. 무슨 맛 좋아하는지

A. 음 말차나 녹차 좋아해

- 동죽 먹는 거 아니냐

Q18. 간식 먹는 거 좋아하는지

A 싫겠니?

Q19. 마지막 노래 추천

A.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니면 바람아 멈추어다오 좋아.

Q20. 너무 늙은 거 아닌지

A. 음 아니야.

CHAPTER.4 베나의 일기장 엮람하기

※ 베나의 일기를 엮람하는 거라서 베나 시점에서 얘기가 흘러갑니다.

3월 11일. 화요일. 날씨 맑음

오늘 문래청소년 센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다. 다른 곳으로 다시 이동한다는 게 너무 귀찮았다.

문래청소년 센터도 좋았고 딱히 어딘가로 또 이동하고 싶지는 않았다. 집순이라 그런 것 같다. 집 순이로 살면 지루할 것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들지만 나는 나름대로 재밌게 지내고 있다. 1 시쯤 학교에 도착했다. 그렇게 다시 자다가. 어딘가로 옮겨져서 가고 있었다. 한 3 시간 잤나. 다른 장소에 또 와있었다. 집순이인데 오늘날 벌써 3 번 이동했다. 집에 가고 싶다. 그리고 갑자기 시끄럽게 떠들고 놀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다시 자고 싶다. 그럼 다시 일어나면 집에 있겠지.

3월 23일 월요일 날씨 모르겠음.

그렇게 다음날 일어났는데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이제는 여기가 그냥 집이구나 한다. 내 이름이 베나라고 한다. 딱히 맘에 들지는 않지만, 항의할 수는 없으니 그냥 살기로 딱히 할 말이 없다. 그냥 있다 보니까 물도 마시고 자고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 다시 자야겠다.

이제는 일기 쓰는 것도 너무 귀찮아졌다. 그래서 생각나거나 기억해야 할 게 있을 때만 쓰기 시작했다. 오늘도 일어나보니 날고 있었다. 그러다가 도착하고 한숨 자고 나니 또 다른 곳에 있었다. 이게 맞나. 그리고 다른 화분들이 참 많았다. 아니, 갑자기나 장신 됐는데?? 나 단신인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다. 근데 내 주위에 정말 많은 나무가 그것도 진짜 큰 나무들이 많다. 잘까말까 고민하는데 오늘은 그냥 일어나 있기로 했다. 너무 일기에 잤던 내용밖에 없는 거 같아서. 밝은 성격이긴 한데 이렇게 놔두고 가면 밝을 수 없지!!

4월 27일 - 4월 28일 날씨 더웠음

다시 불러 왔다... 처음보다 날씨가 상당히 더워졌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안 자고 깨어 있기로 했다. 그리고 동생들도 생겼다. 이제 시끄러워질 수 있을 거 같다. 이제는 여기저기 나다니는 것도 익숙해졌다. 이제는 놀러 다니는 것도 괜찮을 거 같다고 생각한다. 근데 나랑 같이 사는 놈은 매일 놀러 다니네?? 나는 집에서 자고 있을 때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고 혼자 경기도도 다녀오고 근데 학원은 안 간다. 왜 그런 거지. 집에서 누워서 폰 그만하고 숙제나 해라.

5월 5일 날씨 모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다. 그렇게 동생들이랑도 꽤 친해졌고 다른 한 명은 베란다로 가서 볼일이 없다. 그리고 모르고 있었는데 내 옆에는 엄청난 연 장자도 있었다. 진짜 놀랐다. 요즘은 자기만 하지 않고 보통 떠드는 거 같다. 그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르신인데? 다 같이 얘기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빨리 간다. 근데 요즘 너무 더워지고 있어서... 8 월은 어떻게 버티기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다. 뭐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야지~ 아직 많이 남았어!

6월 1일 날씨 더움.

벌써 이렇게... 너무 덥다. 녹아내릴 거 같아. 8 월이 다가오고 있어 벌레들이 생기고 있어... 살려줘... 하 이제는 공사해서 창문 열어 놓고 자면 너무 시끄럽다고!!! 7 시 강제 기상이라니... 그럼, 이제 너무 더워서 쓰는 것도 지쳤어... 공사 안 할 때 자야 해! 자고 와야겠다.

공사 시작으로 한숨도 못 잤다. 밤에만 잘 수 있다는 게 너무 슬프다... 하구 12 시간 넘게 숙면하던 내가 그렇게 못 잔다니+ 그냥 이야기나 하면서 버텨야지. 모두 더위 아자!



조건우

당신의 길고 어두운 인생의 터널 끝에 이 책이 있기를

여러분, 살다 보면 위기가 닥치는 법입니다. 저도 이 책을 쓰면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글을 바삐 써야 하는 날들도 있었고, 도저히 글감이 생각나지 않아 스스로와 싸웠던 날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나니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제가 쓴 책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겪는 사람 중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만이 승리한다.’ 저의 식물인 ‘내가 제일 잘 나가’와 함께 이 책을 끝까지 완성했습니다. 저의 노력이 담긴 글을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봐 주시길 바랍니다.

늘 네가 잘 나가길 바라며

안녕. ‘내가 제일 잘 나가!’ 난 너를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는 조건우라고 해. 우선 너를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뻐. 처음에 널 키우게 되었을 때는 귀찮은 마음이 들었는데 점점 너를 돌보는 게 재밌어졌어. 난 너를 보면 무지개가 떠올라. 왜 무지개가 떠오르냐고? 색마다의 의미를 말해줄게.

먼저 빨간색은 하트를 의미해. 새빨간 하트처럼 너에게 커다란 사랑을 주고 싶기 때문이야. 주황색은 새콤달콤한 오렌지. 새콤하면서 달콤하기까지 한 오렌지처럼 너는 너만의 풍부한 개성과 넘쳐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난 그런 네가 참 매력 있더라. 노란색은 너의 밝은 모습을 보고 떠올린 거야. 항상 밝고 활기찬 너의 모습은 내가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긍정의 힘을 줘. 초록색은 넓은 초원을 의미해. 초원처럼 넓은 너의 마음과 상쾌한 모습이 나에게 큰 힘을 주는 것 같기 때문이야. 또한 초록색 나무처럼 쭉쭉 자라는 너의 모습을 보면 나도 같이 성장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파란색은 깊은 바다를 떠올리게 해. 네가 깊이 생각하는 모습은 나에게 몰입과 진지함을 일깨워주지. 푸른 별과 하늘처럼 반짝이는 지혜와 넓은 마음을 가진 네가 참 사랑스러워.

마지막으로 보라색은 많은 포도알. 너는 포도알처럼 수많은 장점과 매력을 가지고 있잖아. 앞으로 너의 그 수많은 장점과 매력을 수없이 뽐내길 바랄게. 그래서 넌 나에게 무지개와 같은 존재야. 늘 햇살처럼 밝은 너의 모습과 흙처럼 굳건한 마음을 생각하며 이 편지를 마치도록 할게. 사랑해~

잘나가는 내가 고마운 너에게

안녕 조건우 널 만나게 되어 기뻐. 그날 나는 누가 내 친구가 될지 기대와 궁금증을 품고 있었는데 너 같은 잘생긴 친구가 나에게 와줘서 감격스러웠어. 네가 나에게 붙여준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이름은 나보다 너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 비록 그 동아리에서는 너 혼자 남자지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 줄게. 앞으로 같이 이야기하고 놀자. 그때 기억나니? 네가 주차장에서 나를 못 찾아 물을 주지 못했을 때 난 네가 날 버렸다고 생각해서 너무 슬펐어. 그래도 결국 넌 날 찾았고 물을 주었지. 나한테 미안했는지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화분에 홍수가 났었잖아. 네 손도 다 젖고 화분도 물 바다가 되니 그 또한 날 화나게 했지. 그래도 이젠 괜찮아. 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식물들은 겪지 못한 우리 둘만의 즐겁고 재밌는 추억이니까... 우리 앞으로 영원한 동반자가 되자. 네가 말한 대로 나 또한 널 사랑해~

늘 세련되고 경이로운 나

나에게는 여러 장점이 있다. 통통 튀는 매력과 불타오르는 에너지까지 셀 수 없이 많은 나의 장점 중에 두 가지를 고르자면 바로 긍정적인 것과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이다. 나의 장점들을 비유해 설명해 보겠다. 먼저 나는 긍정이 밝은 노란색 같다고 생각한다. 노란색과 검은색을 떠올려 보면 먹구름과 대비되는 희망의 빛이 떠오른다. 아무리 먹구름이 많아도 희망으로 빛나는 노랑이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즉, 나에게 노란색은 희망을 떠올리게 하고 나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한다. 그다음 책임감을 생각하면 푸른 소나무가 떠오른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나도 늘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이다. 나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늘 푸른 소나무처럼 나도 늘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화분의 일대기

제1화 할아버지와 이별

1950년 6월 24일 해가 지고 있었다. 한 나이 든 할아버지가 마당에 있는 식물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화분에는 할아버지가 쓴 ‘소원을 들어줌’이 쓰여 있었다. “허허 요 녀석아, 올 한 해도 행복하게 해 다오.” 노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집에 들어가셨고 점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밝게 달이 떴다. 그날 새벽 갑자기 어디선가 폭격 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도 놀라서 집 밖으로 나왔다. “이럴 수가! 전쟁이 났군. 어서 짐을 싸야겠어.” 할아버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할아버지는 짐 보따리를 엮고 식물에 다가오더니 한동안 식물을 쥐었다 놓았다 하였다. 결국 할아버지는 식물에 말했다. “미안하구나, 너까지 데려가면 내 짐이 너무 많을 것 같구나. 전쟁이 끝나면 내가 다시 돌아오마.” 할아버지는 그 말을 남긴 채 빠르게 달려 나갔다. 식물은 할아버지가 다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제2화 한 청년의 소원

할아버지와 작별한 뒤 식물은 정신없이 어디론가 이동했다가 또다시 다른 데로 이동되는 떠돌이 삶을 반복했다. 그렇게 식물이 고생 끝에 도착한 곳은 사람이 북적거리는 한 시장이었다. 식물은 할아버지가

생각나 마음이 아팠다.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소식조차 들려오지 않는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가 또다시 식물의 머릿속에 생각났다. 식물은 너무 괴로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벌써 몇 주일째 이 시장 안에만 갇혀 있었다. 식물은 갑갑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여기서 탈출시켜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식물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때였다. “소원을 들어준다고” 한 잘생긴 청년이 식물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이 식물 얼마예요?” 청년이 물었다. “2,000 원인데, 왜 살 거야?” 가게 주인이 묻자, 청년은 빠르게 2,000 원을 내었다. 가게 주인이 식물을 청년에게 건네자, 청년은 식물을 받으며 웃으면서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청년은 갑자기 덥석 식물을 자신의 품 안에 안았다. 그 순간 식물은 느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를... 청년 또한 느꼈다. 식물이 그와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을... 그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더니 말했다. “나 같은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쉬게 해줘, 부탁이야.” 그는 매일 밤 지친 표정이었지만 식물에게 소원을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년이 말했다. “오늘 일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제야 내 부탁을 들어주겠지, 식물아, 그동안 고마웠어.” 말을 마친 청년은 밖으로 나갔다. 식물은 그의 마지막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몇 시간 뒤, 식물은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렇게 식물은 깨달았다. 청년은 다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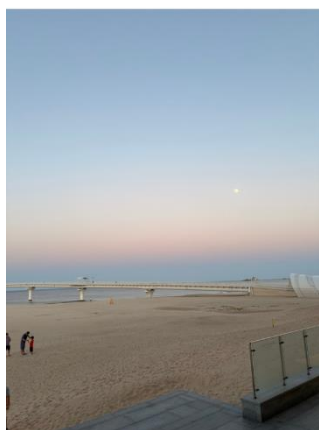
제 3 화 대통령 부하의 소원

천둥번개가 내리치는 밤 한 남자가 간결하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망할 테야. 그의 욕심이 사라질 수 있도록 누가 좀 도와주겠나?” 그는 항상 표정이 어두웠고, 식물에게 계속 말했다. “시간이 없어. 빨리 그의 욕심이 사라지게 해 다오. 어서” 매일 소원을 빌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양복 주머니 안에 총을 넣었다. “어쩌면 내가 오늘 널 보는 마지막 날일 수 있겠구나. 부디 다음 주인에게 잘 가기를...” 그렇게 밖에서는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갑자기 총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에 피가 튀었다. 그렇게 그의 이번 주인 역시 식물 곁을 떠났다.

제 4 화 한 대학생의 소원

1987 년 봄 여기는 젊은이의 열정이 느껴지는 대학교였다. 그중 한 학생이 식물을 정중하게 돌보았는데 그 학생 역시 소원이 있어 보였다. 식물은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 편히 이야기해도 돼.’ 그 생각을 알아차렸는지 학생은 식물을 안고 빠르게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갔다. “나의 부탁은 경찰이 사람들에게 최루탄을 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 국가가 빨리 평화로워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학생은 학교가 끝날 때마다 화분에게 와서 소원을 빌었고, 날씨는 점점 더워졌다. 6 월 9 일 그는 식물을 안고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더니 말했다. “이번 시위에서는 반드시 경찰들에게 우리에게 힘을 제대로 보여줄 거야. 너도 응원해 줘.” 그렇게 시위는

시작되었고, 결국 최루탄이 또다시 사람들에게 날아왔다. 그는 쉬지 않고 계속 시위를 해댔고, 그의 머리 위에서 날아오는 최루탄을 보지 못했다. 펑! 소리가 났고, 학생과 식물은 길바닥에 쓰러졌다. 화분이 깨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에게 소원을 빌던 학생의 피 흘리는 모습이었다. “안돼. 죽으면 안 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화분의 조각들은 한 여학생에게 안겨졌다. 그 여학생은 이한열의 동기였다. 아수라장을 벗어난 식물과 여학생은 여학생의 집에 들어갔다. 여학생은 빠르게 다른 화분 안에 식물을 넣었다. 그리고 네임펜으로 쓰기 시작했다. ‘소원을 들어줌’ 그리고 그녀는 식물을 정성껏 키웠다. 2010 년 후반 그녀는 문래동 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얼굴이 나이 들어가고 있는 그녀는 말했다. “이 아름다운 식물을 평생 나만 키울 수는 없지. 기부하자!” 그렇게 그녀는 문래 청소년센터로 식물을 기부하였고, 시간이 흘러 이 식물은 한 중학교에 오게 되었다. 지금도 그 식물은 한 중학교에 있고, 화분에는 조그마한 글씨로 ‘소원을 들어줌’이라고 쓰여있다. 학생들은 아직 그 글씨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그 식물에 항상 소원을 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 ‘좋아하는 아이와 옆에 앉게 해주세요.’ 식물은 말은 하지 않지만, 늘 속으로 중얼거린다. ‘너희들의 소원을 모두 들어주고 있어.’



김연하

배리어프리 동아리에서 식물을 키우며 느낀 생각과 이야기를 글로 쓴
중학교 1학년입니다.

몰티셔스가 알려주는 나의 장점

동아리 활동으로 장점 찾기 활동을 하면서 나의 여러 장점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에게서는 좋은 면들이 많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장점은 '물건을 사기 전에 이게 꼭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는 신중함, 불필요한 돈 낭비를 하지 않는 절약 습관'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장점은 '새로운 환경에서도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고, 잘 어울리는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내가 가진 이 장점들이 식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고민이 많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다육이 '몰티셔스'의 특징과 닮은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다.

우선 다육이라는 식물은 사막처럼 척박하고 힘든 환경에서도 살아남는 강인한 식물이다. 다육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물을 한 번에 낭비하며 평평

쓰지 않고, 통통한 잎사귀 속에 꼭 필요한 만큼만 아주 소중하게 아껴서 저장해 두며 자라는 특별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학교생활을 하다가 깜빡하고 몰티셔스를 찾아가지 못했을 때, 몰티셔스는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도 끝까지 죽지 않고 버텨주었다. 내가 다시 찾아갔을 때 원래의 초록빛을 잃고 잎이 말라가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평소에 에너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아껴 쓰는 다육이만의 현명한 생존 장점 덕분이었다. 물건을 사기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고 낭비하지 않으려는 나의 신중한 성격이, 작은 화분 속에서 물을 아껴 쓰며 곳곳하게 버틴 몰티셔스의 모습과 꼭 닮은 것 같아서 신기하고 마음이 짝하기도 했다.

또한, '친화력'도 몰티셔스의 사연과 예쁘게 연결된다. 나는 친구들과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편이다. 그런데 몰티셔스의 편지를 읽어보니, 몰티셔스 역시 나를 만나기 전 주민센터 창가에 살 때부터 많은 사람을 구경하며 세상 이야기 듣는 것을 좋아했던, 아주 씩씩하고 친화력 넘치는 식물이었다. 동아리 첫날 교실에서 가위바위보를 할 때, 다른 식물들이 다 주인을 찾아가고 혼자 끝까지 남아 속상했다는 몰티셔스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더 마음이 쓰였다. 한 달 동안 혼자 교실에 남겨져 무섭고 외로웠을 텐데도, 내가 오랜만에 찾아 미안하다며 다가갔을 때 내 진심을 금방 알아채 주고 다시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아 정말 고마웠다. 먼저 다가가고 소통하려는 나의 친화력과, 나를 믿고 다시 씩씩하게 일어서려는 몰티셔스의 다정한 성격이 서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동아리 첫날 가위바위보에서 아쉽게 져서 고른 다육이 식물이었지만, 알고 보니 몰티셔스는 나와 닮은 멋진 장점들을 참 많이 가진 최고의 단짝이었다. 소중한 것을 아끼는 몰티셔스의 신중함을 보면서 나도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소중한 인연들을 더 깊이 아끼고 돌봐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내 장점인 친화력을 발휘해서, 앞으로는 몰티셔스를 혼자 두지 않고 매일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 나누는 진짜 친구가 될 것이다. 서로의 장점을 쏙 빼닮은 우리 둘이 함께 마음을 모은다면, 책도 멋지게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짝 친구

몰티셔스에게

몰티셔스야 안녕! 나는 너의 새 주인 김연하라고 해.

먼저 너의 아주 특별하고 개성 넘치는 이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자세히 들려줄게. 처음 동아리 교실에서 가위바위보를 거쳐 너를 내 책상 위로 데려왔을 때, 화분 표면엔 'pot'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적혀 있어서 이름을 뭐로 지어줘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 평생 불릴 이름인데 아무렇게나 지을 수는 없잖아.

그때 내 옆에 있던 친한 친구 헤빈이가 최근에 학교에서 사회 수행평가로 조사했던 나라가 있다면서 '모리셔스'라는 이름을 툭 던졌지 뭐야! 화분에 적힌 단어인 '포트'와 친구가 말한 '모리셔스'를 머릿속에서 이리저리 굴리며 합쳐 보았어. "포리셔스? 모트?" 하면서. 여러 가지 단어를 조합하며 장난을 치다가, 갑자기 우리가 평소애 정말 좋아하고 맛있게 먹던 달콤하고 바삭한 초코 간식인 '몰티셔스'가 번뜩 생각났어! 너를 볼 때마다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기분이 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적으로 네 이름을 몰티셔스라고 결정하게 되었어. 친구랑 같이 머리를 맞대고 깔깔거리리며 지은 이름이라 조금 엉뚱하긴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귀여운 이름이니까 네 마음에 꼭 들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몰티셔스야, 너를 처음 만난 날의 설렘과 기쁨도 잠시, 한 달이라는 지난 시간 동안 너를 단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아서 정말 사과하고 싶어. 솔직히 변명하자면,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나서 매일매일 학교 과제도 많고 친구들과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작은 식물인 너의 존재를 잠깐 까맣게 잊었어.

그러다 문득 동아리 첫날이 생각났는데 온몸이 찌릿하더라. 바로 너를 찾으러 달려갔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기 전부터 '한 달 동안 물도 못 먹었는데 어찌지? 죽었으면 어떡하지?' 하며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너를 마주했을 때, 원래 너의 생기 넘치던 초록빛은 온데간데없고, 온통 흐릿하고 아파 보이는 연두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봤어. 작고 소중한 잎사귀 곳곳에 수분이 다 빠져나가 바짝 말라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너무 놀라고 눈물이 날 것 같을 정도로 미안했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찾아와서 물 한 모금이라도 챙겨주었으면 네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지 않았을 텐데.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밀려왔어.

비록 시작은 너무 서툴렀고 너에게 상처와 외로움을 주었지만, 그 힘든 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고 씩씩하게 살아남아서 나를 기다려 준 너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 꼭 그날의 미안함과 후회에만 멈춰

서지 않고, 앞으로는 매일 등하교 시간에 네가 있는 곳에 들러 상태를 살피며 자주 찾아올게. 날이 좋은 날에는 창가에 데려가 따뜻한 햇빛도 듬뿍 받게 해주고, 목이 마르지 않게 물도 제때 챙겨주는 최고의 주인이 될게. 네가 다시 건강하고 싱그러운 초록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정성껏 돌봐줄게. 우리 이제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말고, 매일 만나서 조잘조잘 이야기도 나누는 진짜 단짝 친구가 되자. 약속할게, 몰티셔스야!

연하가

새로운 만남

연하에게

연하야 안녕! 나는 동네 주민센터의 햇별이 잘 드는 따뜻한 창가 자리에 살던 작은 다육이 식물이야. 비록 몸집은 조그만 화분 안에 갇혀 있지만, 나는 그곳에서 튼튼하게 자라고자 아침마다 온 힘을 다해 잎사귀를 넓히던 씩씩한 식물이었어. 매일 주민센터 창가 너머로 바쁘게 오가는 동네 사람들을 구경하고, 사람들이 나누는 세상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 게 내 하루의 가장 큰 취미이자 낙이었어.

그러던 어느 날, 주민센터 직원분들이 내 화분 앞에 옹기종기 모여 나에게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게 되었어. "이 씩씩하고 예쁜 식물을 당산중학교 동아리에 선물로 보내주자. 귀엽고 다정한 아이들이 모여서 배리어프리 책을 만든다는데, 이 식물이 옆에 있으면 정말 좋은 영감이 되어줄 거야"라고 말씀하시더라고! '장벽이 없다' 뜻을 가진 배리어프리 책,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다정한 책을 만드는 동아리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작은 심장이 쿵다쿵다 뛰며 참 기쁘고 설렘. 나처럼 흔하고 평범한 식물도 그곳에 가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 있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주민센터 분들이 나를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학교로 보내주실 때, 나는 덜컥거리는 상자 속에서 '제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고 아껴줄 수 있는 착하고 다정한 주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렸단다.

그렇게 복잡하고 긴 복도와 높은 계단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중학교 교실. 교실 문이 활짝 열리자마자 중학교 1 학년 아이들의 에너지 넘치는 왁자지껄 목소리가 나를 반겨주었어. 긴장이 됐지만 과연 누가 내 진짜 주인이 되어줄지 기대되는 마음에 눈을 동그랗게 떴지. 그런데 내 예상과는 다르게,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가위바위보를 시작했어. 그리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아이들이 다른 예쁜 식물들을 하나씩 웃으며 데려가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아무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끝까지 남겨지게 되었어. '설마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아서 나 혼자 버려지면 어찌지?'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무섭고 속상해 눈물이 날 것 같았어. 바로 그 순간, 네가 가위바위보에서 멋지게 이긴 뒤 얼굴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나를 들어 주었잖아! 나를 소중하게 품에 안아주던 네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특별한 식물이 된 기분이었어.

그 뒤로 한 달이라는 긴 시간 동안 네가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았을 땐 한동안 외롭고 슬프기도 했어. 목이 말라 타들어 갈 것 같고 따스한 햇볕이 그리워 온몸에 힘이 쭉 빠질 때, '나는 벌써 잊힌 걸까, 혼자 여기에 평생 버려지는 걸까' 깜깜한 밤마다 두려움에 떨었거든. 점점 몸이

흐린 연두색으로 변하고 소중한 잎사귀들이 바짝 말라 갈색으로 변해갈 때도, 나는 네가 첫날 가위바위보를 이기고 나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었던 그 다정한 눈빛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죽지 않고 씩씩하게 버텼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다시 만났던 그날, 교실 문을 열고 들어와 진심으로 깜짝 놀라며 가슴 아파하던 너의 표정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쌓여있던 한 달 동안의 외로움과 서운함은 눈 녹듯 싹 사라졌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네 눈빛 속에서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이 온전히 다 느껴졌으니까! 게다가 친구 헤빈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어주었다는 '몰티셔스'라는 이름도 기절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달콤하고 바삭한 초코 과자 같다니, 너무 개성 있고 신기해서 나만의 특별한 정체성이 생긴 것 같아 날아갈 듯이 기뻐.

나는 다육이라서 다른 식물들보다 자라는 게 더더 보일 수도 있지만, 네가 주는 사랑과 다정한 관심을 먹고 다시 예전처럼 튼튼하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노력할게. 네가 책을 만들 때, 네 책상 옆에서 가장 따뜻하고 예쁜 영감을 주는 든든한 초록 지원군이자 친구가 되어줄게. 우리 앞으로는 약속한 대로 더 자주 만나서 예쁜 추억 많이 쌓자. 연하야! 내 이름을 지어줘서, 그리고 다시 나를 찾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몰티셔스

